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 개최

-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사태 동향, 국내경제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점검 -
- 중동 현지상황 및 금융·실물경제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필요시 즉각 조치 -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6.22(일) 15:30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컨퍼런스콜)를 주재하여 금일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사태 동향 및 국내외 경제 영향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 기재부(주재: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이 직무대행 1차관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으며 향후 이란의 대응 양상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각 기관이 모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중동 사태 동향 및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이동향 발생 시 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6.13일(한국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다소 확대*된 모습이나, 아직까지 국내 에너지 비축·수급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해운·물류에서도 중동 인근의 우리 선박(31척)이 안전 운항을 지속하는 등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에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중심으로 중동 현지상황 및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점검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고, 에너지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물류 경색 우려 확대 시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지표 변화(6.12일 대비 6.20일): (두바이유)12.1% (원/달러 환율)6.9원 (韓 국채 금리^{10년물})4bp (코스피)3.5% (코스닥)0.3% (美 S&P500)△1.3% (日 니케이)0.6%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4-215-2730)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bongseokchoi@korea.kr) 사무관 신승헌 (happyhoney@korea.kr)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 중동1과	책임자	과 장	장운정 (02-2100-7480)
		담당자	서기관	장상우 (jangsangwoo@mofa.go.kr)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3-5120)
		담당자	사무관	강봉조 (kbnj15@korea.kr)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오영록 (044-200-5710)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jiyeon1004@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인욱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김경찬 (kimkchant@korea.kr)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책임자	팀 장	박성진 (02-759-4777)
		담당자	과 장	최 신 (shin@bok.or.kr)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	책임자	팀 장	이원흠 (02-3145-8180)
		담당자	수 석	신환규 (hkshin@fss.or.kr)
국제금융센터	종합기획분석실	책임자	실 장	안남기 (02-3705-6232)